

본당 소식

2025년 2월 교황님 기도지향 : 사제성소와 수도성소

교회 공동체가, 사제 생활과 수도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는 젊은이들의 바람과 의문을 환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미사 및 친교 나눔 이후 뒷정리를 철저히 합니다.
- ♣ 오늘 미사 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민재희 세바스티아노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70,00€ • 교무금 290,00€

전례 봉사

이번 주일(2월 9일)	다음 주일(2월 16일)
1독서: 민재희 세바스티아노	1독서: 윤민지 올리안나
2독서: 윤다혜 아멜리아	2독서: 김주희 안나
복 사: 김사빈 엠마, 강윤아 헬레나	복 사: 변가인 헬레나, 정아인 레나

전례 성가

입당: 337(미사 시작)

봉헌: 340(봉헌)

성체: 167(생명이신 천상 양식), 179(주의 사랑 전하리)

파견: 345(미사 끝)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2월 9일 (녹) 연중 제5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 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1독서 (이사야서 6,1-2 7,3-8)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2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 있었다.
 3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4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5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뵈다니!”

6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7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8 그때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5,3-8,11)

형제 여러분, 3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4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5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6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7 그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11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복음 (루카 5,1-11)

1 예수님께서 켄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2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3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4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사렛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7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8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9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10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이신 주님, 교회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저희도 기억하며, 많은 이를 주님께 이끌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해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어,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정을 앞세우며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3.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만 의지하는 가난한 이들을 굶어살피시어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이웃인 저희는 필요한 양식을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풍요롭게 하시어, 다양한 사도직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